

투데이 칼럼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군사 분야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최근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북한에 와서 관광 분야 등에서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해주 지역은 건설 산업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청년층이 모스크바 등 대도시로 빠져나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서 산업 인력에 공백이 생겼다. 외화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노동력 파견이 절실하다.

서로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나 고용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인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협력을 강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는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하산역에서 김 위원장을 영접했던 인물이다. 당시에도 방북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3개월 만에 성사된 방북에서 대표단은 방북 일정 대부분을 경제 협력 논의에 집중했다. 그 밖에도 북한의 제조 산업 현장과 외국어 교육기관, 관광시설도 방문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복구 논설위원

다. 그러나 관광, 무역, 문화, 스포츠 교류 강화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관광이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발미로 북한이 또다시 노동자를 러시아로 파견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청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거 동원되면서 북한 노동력이 절실한 건 러시아 쪽이다. 북한 역시 외화벌이가 간절한 상황이다. 북한에서 노동자 해외 송출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외화를 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중 러시아는 북한의 주요 노동자 송출 지역이다.

지난 2014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당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러시아와 북한을 오간 열차도 1년 사이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

확인 됐다. 2년 뒤인 2016년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발견됐다.

당시 러시아 건설사 측은 각종 안전사고와 부패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자 북한 노동자들을 몰파구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체인 러시아 제조업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과복, 시멘트, 수산물 가공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상-15형을 시험 발사하면서 노동자 해외 송출에 제동이 걸렸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2897호를 결의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개월 내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2019년 러시아가 유엔에 제출한

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 수가 3만 명 수준에서 1만여 명 정도로 급감했다. 북한으로서는 큰 손실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의 불만이 컸다.

최근 북러 양국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눈치를 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 파견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해주 주지사는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용기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도 나진-하산 철도 운송 확대를 제안하는 등 북러 간 밀월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두 나라간 협력이 첨단 무기, 기술 거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군사 관계를 위해선 군사 관계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인 관계, 교육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씩 키워 가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를 비롯 외교와 군사적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밀월 관계 이상으로 커졌다. 이제는 아예 드러내 놓고 양국의 협력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하면서까지 끈끈함을 과시하고 있다.

사설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

KBS 2TV '고려 거란 전쟁'이 10.2%의 최고시청률을 기록했다.

3만 거란군이 몰려오자 양규(楊規) 장군은 군인들에게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하며 적진에 뛰어들었다.

은몸에 화살을 맞은 채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은 '명장면'으로 손꼽힌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적군의 수장인 야율용서가 있는 곳까지 300보를 걸어가며 싸우다 죽는 장면은 감동적이다.

양규 장군은 '흥화진의 늑대'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는 1010년(현종1)에 거란의 성종(聖宗)이 흥화진(興化鎭)을 포위하자 성을 지키며 항복 권유를 물리쳤다.

구주(龜州) 방면으로 돌아가는 거란군을 지키고 있다가 무로대(無老代)에서 2,000여 명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날 2,000여 명을 탈환했다. 석령(石嶺)에 이르러 다시 2,500여 명을 베고 포로가 된 1,000여 명을 탈환하였다.

양규는 한 달 사이에 7차례 싸워 백성 3만여 명을 구했다. 한편 우리 역사에도 거란은 일찍부터 등장했다. 고려려 공개토대왕이 거란족을 공격하여 그들이 남치한 고구려 백성 1만 명을 구출해 온 일(392년)이 있다.

서기 6세기 말, 약 300년 동안 분열 상태에 있었던 중국은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었다. 그러자 수나라 주변 세력들은 자연히 수나라에 복속되었는데, 거란도 수나라에 접근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수나라가 고구려와 전쟁을 치르는 사이, 거란은 점차 강력해졌다. 고구려 전쟁의 패배와 중원에서의 반란으로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자 거란족은 당나라에 복속했다.

거란족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군사를 보내 당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다. 호국정신이 절실한 요점이다.

전북은행 예대금리차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여전히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 속에 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예적금 금리는 오르면서 은행권은 예대금리차가 석 달 연속 축소됐다.

우선 정책 서민 금융을 제외한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0.742%p이다. 전달보다 약 0.05%p 하락하며 석 달째 축소됐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5대 은행 평균 가계 대출금리는 연 4.73%로 전달보다 0.03%p가량 떨어졌다. 반면 수신금리는 3.988%로 전달보다 0.02%p 오르면서 예대금리차가 더 좁혀졌다.

5대 주요 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만 확대됐다. 농협은행 가계예대금리차는 1.19%p로 가장 컸다. 이어 국민은행 0.8%p, 하나은행 0.65%p 순이었다. 가장 작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0.52%p로 나타났다.

19개 전체 은행권 중 올해 내내 예대금리차 1위는 전북은행이었다. 전북은행은 지난 1년간 최저 4.91%에서 최대 6.48%의 예대금리차를 보였고, 지난달에도 확대됐다.

또한 대출 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3.31%p로 토스뱅크 3.4%p에 이어 전국 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컸다.

인터넷은행 중에선 토스뱅크가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1~2%대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달리 3~5%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토스뱅크는 이번에는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전월세자금대출 효과로 여신금리가 하락하면서 차이가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달부터 예금금리 인하폭이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이다. 예대금리차는 다시 확대될 전망이 나온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빨리 여길 벗어나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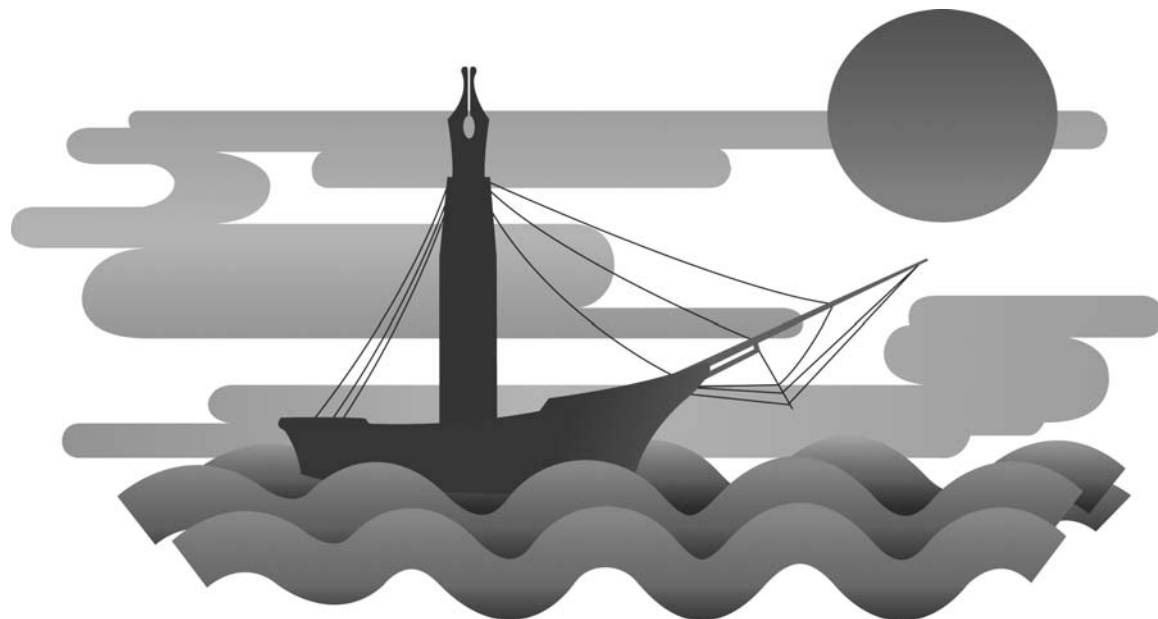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지난 18일(현지시각)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치안 불안에 대한 혐의와 이리얼 앙리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려 한 여성이 시위대가 도로를 막고 불 지른 타이어 더미를 지나 걸어가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 투자 관련 연설하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노스캐롤라이나주(NC) 콜리의 애보츠 크리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만6천 가구와 기업에 초고속 인터넷을 연결하는 8천200만 달러(약 1천98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NC를 방문했다. 한편, 바이든은 대선 승리를 위해 경합주인 NC 16인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